“잘 먹어야 할 것 중 으뜸은 마음”

암도 대종사, 정릉 삼원사 생전예수재서 법문

5월 7일 ‘잘 사는 법’ 주제로
목련 존자 효심과 천도재 설명
“대장경 한 글자로 줄이면 心”
양심 저버리지 않고 살 것 당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삼원사 법당에서 여러 사부대중이 자리한 채 봉행된 생전예수재.

“이번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를 몰라요. 잘 살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하는데, 그 중 으뜸은 바로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겁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가 지난 7일 정릉 삼원사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법사로 나서 대중에게 ‘잘 사는 법’을 주제로 이 같이 법문했다. 삼원사는 암도 대종사가 1986년 창건한 천일기도 관음도량으로, 현재 상좌인 선각 스님이 4대 주지를 맡고 있다.

암도 대종사는 이날 생전예수재와 같은 성격의 천도재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 존자의 효심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인도 왕사성을 대표하는 거상의 장남으로 태어난 목련 존자가 잘못된 품행으로 일평생을 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일을 설명했다.

스님은 “목련 존자 아버지의 별세 이후 어머니는 물려받은 재산을 약속대로 공양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수행자를 능멸하거나 음주가무와 향락을 일삼으며 살았다”면서 “그 과보로 어머니는 죽어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뛰어난 신통력을 갖춘 목련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도움을 구해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며 “지금의 백중이 여기에서 유래했고, 다른 천도재들도 사실상 뿌리가 목련 존자의 효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암도 대종사는 전생과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윤회 속에서 삶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한 개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도 설명했다.

스님은 ‘잘 먹는 일’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을 것, 좋은 공기를 천천히 마시도록 노력할 것, 나이가 들수록 넓은 마음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암도 대종사는 “기나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압축하면 ‘마음 심(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 마음속 영(靈)이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정직해야 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염불이나 명상 등의 수행을 어려워하는 불자들을 위해 故윤극영 작곡가가 1924년 지은 동요 ‘반달’을 불러보라고 제안했다. 첫 소절 때문에 노래 제목이 ‘푸른 하늘 은하수’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 이 동요에서 암도 대종사는 ‘돛대’나 ‘삿대’도 없이 서쪽 나라로 간다는 구절에 주목했다. ‘반달’을 불교적인 의미로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님은 동요를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스님은 “돛대와 삿대 없이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결국엔 서쪽 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간다고 이해하라. 이마저도 안 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라”며 “생전예수재 공덕을 쌓은 불자들과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117주년 동국대, ‘Meta Plan 120’ 발표

중강당서 기념식…“건학이념 계승해 미래를”



개교 117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미래 발전 계획인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5월 4일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동국대는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 Meta Plan 120’는 윤재웅 총장 임기 마지막 해이자 동국대 개교 120주년인 2026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 25개와 세부과제 50개 실행을 통해 ‘혁신적 상상력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동국’을 목표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ICT 기반의 새로운 대학 경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추진할 5가지 영역별 전략 및 핵심과제로 △건학이념 - 세계적 불교 중심대학 기반 확립 △교육 - 소프트파워 화쟁형 인재양성 △연구 · 산학협력 - 창의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경영 · 인프라 - 미래사회 수요 대응 경영혁신 △대외협력 - 기부금 모금 기반 고도화 및 1000억 모금 등을 추진한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학이념을 계승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4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한다. 동국 Meta Plan 120은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25개 핵심과제와 5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4년간 우리 대학은 동국 Meta Plan 120을 바탕으로 국내 TOP 3, 글로벌 50위 대학을 향한 비전 2040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난 117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학문의 전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동국대학교를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내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9명에게 공로상을, 48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 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주는 개교 117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은 전자전기공학부 박정동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은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보존처리 ‘보물 자수가사’ 보러 오세요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3~25일
하루 3번 총 9차례 현장 공개
1979년 보물 지정 이후 최초
5월 10일부터 선착순 사전접수


액자에 들어있는 보물 자수가사. 현재 보존처리 중이다.

현재 보존처리 중인 보물 ‘자수가사’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와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9회(1일 3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물 자수가사’ 보존처리 현장을 공개한다.

보존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보물 자수가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三寶, 불 · 법 · 승)’ 125개의 도상을 수로 놓은 작품이다. 실제 착용 목적이 아닌 예불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보물 자수가사(刺繡袈裟)’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9년부터 「자수가사」의 옛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있다.

‘보물 자수가사 프로젝트: 보존과학자의 1492일’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12월까지 복원 완료가 예정된 보물 자수가사의 보존처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공개행사에서는 보존처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와 젤 세척, 인공 열화 실험 등 직물 보존처리 최신 정보와 함께 명주짜기, 천연 염색과 같은 전통 공예기술을 비롯해 ‘자수가사’의 보존처리 여정에 깃든 보존과학자의 노력과 고민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보존처리로 인해 자수 뒷면 배접지가 제거된 상태라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수 뒷면도 볼 수 있다.

행사는 유물의 안전한 공개를 위해 사전 신청한 선착순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자수가사 소장처인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 내 ‘프로그램 예약하기’에서 5월 10일 정오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보물 자수가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국가문화유산에 담긴 새로운 가치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3회 원효학술상에 박태원 명예교수

학생부문 송영미 · 이태영 · 이도연 씨 선정

제13회 원효학술상 학자부문 대상에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가 쓴 〈원효의 통섭철학〉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는 “5월 2일 종합심사회의를 열어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학자부문 대상은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의 저서 〈원효의 통섭철학〉(세창출판사, 2021)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석 · 박사 과정 학생 부문에선 아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송영미 씨의 논문 ‘마음챙김과 자비심 기반 직무소진 예방 명상 프로그램(MCBP) 개발 및 효과’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태영 씨의 ‘불교에서 소리의 공능(功能)에 관한 연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에는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도연 씨의 ‘진제의 삼성설 연구: 현장의 삼성설 해석과 대비하여’가 선정됐다.


제13회 원효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원효의 통섭철학’과 저자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는 “응모된 총 35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학자부문 대상은 3000만원, 학생부문 은상은 각 600만원, 동상은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삼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장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이나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너그럽게 혜량해주시길 바랍니다.
댁내에 건강과 평안,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故김주일 국장 49재 –
6월 21일(수) 오전 11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초재부터 6재까지는 유가족 및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례위원회